

LG디스플레이, LCD 생산 “STOP”

파주 · 구미공장 12일간 가동중단 ... 협력기업 · 지역상권 영향 우려

LG디스플레이는 경기불황에 따른 LCD 판매 부진과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파주와 구미의 LCD공장 가동을 12일간 중단한다.

LG는 2008년 12월24일부터 2009년 1월4일까지 파주 7공장과 구미 1-6공장의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계획이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최근 LCD 재고가 쌓이면서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노조와 협의한 끝에 파주 7공장의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다”며 “구미 1-6공장도 비슷한 기간에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으며, 노조와의 최종 협의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 “모든 공장이 같은 기간에 가동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미 5공장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비슷한 기간에 재고조절을 위해 가동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장 가동중단으로 파주 7공장은 6000여명의 직원 가운데 공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원을 제외하고 4000여명이 휴무하게 되며 기능직은 연월차 유급휴무를 적용받고, 사무관리직은 재충전 휴가로 활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LG디스플레이는 파주 · 구미 공장의 가동중단으로 4/4분기에 20% 가량의 감산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으며 파주와 구미 지역 협력기업은 물론 지역 상권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12/18>